



홍승재 / 본회 감사
한국컴퓨터(주) 사장

小 食 大 失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가 너무 혼란했으며, 경제 역시 지극히 어려웠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매일 신문을 들춰 보거나 TV뉴스를 들어보아도 흐릿한 소식은 아주 드물고 무슨 국제스포츠경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소련 등 동구권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리라는 정도외에는 거의 모두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뿐이었던 것 같다.

치안상태가 안 좋으니 사생활도 불안하고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테모로 인하여 우리 삶의 현상인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

여기에 투자마인드와 근로의욕의 저하에 따라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여 가격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인 수출은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식민지가 되는게 아닌지 문득 가슴이 답답해 지곤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젊은 일본순경이 당시 양조장을 하시던 우리 선친에게 안하무인격으로 호통을 쳐서 하도 억울하여 며칠동안 식사도 못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교련선생으로 보이는 건장한 일본 선생이 한국의 젊은 사람을 개폐듯이 패서 얻어맞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직접 본 일도 있다.

1965년 독일에 가족과 함께 근무차 부임한 적이 있었다. 가서 보니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 했던 바나나, 오렌지가 우리나라에서의 다른 과일 값 보다도 훨씬 더 싸서 마치 안 사먹으면 손해볼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가만히 헤아려보니 당시 독일의 텔레폰겐 전축 몇대, 멜세데스 벤츠 몇대만 실어 보내면 후진국에서 바나나, 오렌지를 수십 트럭 사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값이 싼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작금에 우리 정치가들은 국리민복 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학생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도 좋다는 듯 특하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오곤 하지만, 우리 전자공업에 종사하는 경제인(경영자나 근로자 모두가 한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하고 우리의 생활터전을 일구어 간다는 점에서 모두 경제인이다)은 묵묵히 참고 일해

가야겠다.

때론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어야겠다. 부모가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나쁜길로 빠지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고픈 배를 참아가며 묵묵히 학업을 마치거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가 없고 사회가 어지럽다고 하여 우리 전자공업인 모두가 낙망하여 목적 의식없이 그날 그날을 안이하게 되는대로 보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서의 성공하는 사람들 처럼 일해야 할 것인지는 그 해답이 자명하다. 우리들 전자공업인들만이라도 묵묵히 일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국제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식민지 신세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믿는다. 수백명이 몇 달 동안 꼬박 일해서 만든 양복 몇 십 트럭 실어 보내고 일본에서 칩 몇 상자를 들여온다거나, 수 천명이 일년 동안 애써 만든 몇 천 트럭의 신발 값으로 미국 전투기 한 대도 못 산다

면... 그래서 미국·일본사람은 First Class라고 들어와 고급호텔에 머물며 관광·오락이나 하다가고 우리들은 그 같은 일을 엄두도 못 내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도 외국빚은 늘어만 간다면 그것이 곧 식민지 생활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꼭 일본 순경이 한국 사람 앞에서 한국인을 호통치고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나서야 우리가 식민지 사람임을 알게 된다면 우

리 자신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훨씬 많은 댓가를 치르게 됨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있지 않는가?

바둑 해설을 보면 소탐대실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작은 몇 집에 연연하다가 큰 집을 빼앗기거나 대마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동안의 공휴일 문제로 2년에 걸쳐 이러쿵 저러쿵 떠들며 정부·경영자·근로자측이 옥신각신하더니, 끝내는 시원한 결론도

보지 못한채 내년 달력을 인쇄해 놓은 인쇄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야단들이다. 인쇄용지와 잉크는 순수한 국산이나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그래서 그 손해는 결국 전체 국민경제가 부담하게 된다.

이들 노는것 가지고 싸우다가 그 회사, 직장이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일어서는데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이다.

내가 번돈 내가 써도 지나치면 흠이된다